이두원 Doowon LEE (b.1982-)

| 개인전 |
2023 세가지 맛 아트워크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2022 두원 불혹유혹 (맥화랑, 부산)
2021 "어머니 태어나서 작업 이리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태어나서 네가 이렇게 작업 열심히 한 거 처음 봐" -이두원展 (김리아갤러리, 서울)
2020 花園 IN BIRDS, BIRDS IN 花園 (맥화랑, 부산)
2018 www.oldpainter.come_retro+vintage+painting (맥화랑, 부산)
2017 환쟁李斗元 (맥화랑, 부산)
2016 부전자전 (맥화랑, 부산)
2015 Owls in 畵園 (맥화랑, 부산)
2015 이두원+아웃사이더아티스트 (갤러리다온, 서울)
2014 수묵유정만리도 (김리아갤러리, 서울)
2013 Wild & a Child (맥화랑, 부산)
2013 이동식 아뜰리에이주기 (한기숙갤러리, 대구)
2011 무질서 벗 저스트 고 (한기숙갤러리, 대구)
2011 두원산수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제주)
2010 무+질서=우주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제주)
2009 어른화가병극복기 (3STORY, 서울)
2008 슬프게 화가 난다 (갤러리소굴, 서울)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2024-2019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2023-2018 Kiaf SEOUL (코엑스, 서울)
2023-2018 10-200, 행복한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3 PAUSE (맥화랑, 부산)
2023-2019 ART BUSAN (벡스코, 부산)
2023 어반브레이크 (코엑스, 서울)
2023 신화의 나라: 한국 민화의 원형을 찾아서 (무우수갤러리, 서울)
2022 조선책거리展 (빈 세계박물관, 빈/오스트리아)
2022 Start Art Fair Seoul (갤러리아포레 더서울라이티움, 서울)
2022 컬티베이팅 코리아 (스캇앤제이갤러리 비버리힐즈, 로스앤젤리스/미국)
2021 INTERMISSION (맥화랑, 부산)
2020 코리안아이2020: 한국 동시대 미술 'Creativity & Daydream : 창조성과 백일몽' (에르미타주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러시아)
2020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2019 Korean Eye 2020 Teaser (사치갤러리, 런던/영국)
2018 ART JEJU 2018 (메종글래드제주, 제주)
2018 START KOREAN EYE (사치갤러리, 런던/영국)
2016 어포더블 아트페어 밀라노 (밀라노/이탈리아)
2014 알라 프리마 인디아 아트페어 (뉴델리/인도)
2014 홍콩 컨템포러리 아트페어 (홍콩)
2012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전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제주)
2011 자연이 준 선물 (이중섭미술관, 제주)
2010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전 (이중섭창작스튜디오, 제주)
2010 꿈꾸는 노마드 - 청년작가 5인전 (이중섭미술관, 제주)
2008 Annaaugstaein Fine Arts in Berlin (베를린/독일)
그 외 다수.

| 레지던시 |
2019 담소 창작스튜디오, 제주
2014 영천 예술 창작스튜디오, 영천
2011 이중섭 창작스튜디오,제주
2010 이중섭 창작스튜디오,제주

| 수상 및 활동 |
2023 PCA(Parallel Contemporary Art) 재단(국외), 맥화랑(국내) 전속 계약 체결
2020 '포뮬러E 챔피언십' 전기자동차와의 아트콜라보
2014-2011 문화체육관광부 명예교사미술부문 위촉
2013 제4회 맥화랑미술상 (신진, 청년작가지원전)수상
2012 민칼라 콜라보레이션
2010 골든듀/스타일러스 아트콜라보레이션

| 작가설명 |
작가는 대학에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투적으로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조지아, 치앙마이, 빠이 등 현지에서 구한 독특한 재료와 오브제, 먹 등을 사용하여 보고 느낀 내면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화폭에 담는다.

작가에게 작업실은 늘 이동하는 공간이다. 어떤 공간이든 자연이 제공하는 곳은 아틀리에가 되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기운이 작업 동기가 된다. 쉽 울, 헴프천, 네틀, 린넨 등에 그림을 그리고 돌이나 염소 꼬리털 같이 자연의 재료 뿐만 아니라 색이 선명한 울실이나 단추, 벼룩시장에서 구한 골동품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한다. 재료에는 귀천이 없기에 자연 모든 것은 작가에게 귀한 재료가 된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곤충 등 자연물과 배, 비행기, 집 등 인공물의 결합은 어떤 어색함과 부조화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물의 관계로 발전한다. 작은 이미지와 반전의 스토리가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기도 하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친근한 자연 소재들로 가볍게 풀어내기도 한다. 먹과 색의 조화로 입혀진 소재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스토리를 담은 작품을 완성한다.

| 평론 |

자연으로 문명 이끄는 유쾌한 하이브리드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큐레이터

이두원의 작품에선 마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연적응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두원의 자연적응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을 보는 방식에서 변형, 왜곡, 강조를 선택한다. 둘째, 대비와 위트를 중심으로 코믹성을 제시한다. 셋째 여러 문화의 성과들을 차용한 문화적 혼종(hybrid)을 지향한다. 넷째, 이두원의 작품에는 즐거운 놀이성이 깃들어 있다.

먼저 자연과 생태를 보는 방식에서 변형, 왜곡, 강조의 선택은 동물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새 그림이 주는 크기, 모양은 실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그 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 칫솔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여 포식자로서의 새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두원은 오브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린, 풍뎅이, 강아지들의 생태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성의 획득'이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도 오브제의 효과일 것이다.

둘째, 이두원은 대비와 위트의 방법으로 코믹성을 펼친다. 개구리를 피아니스트나 붓다에 대비하거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여 새를 날벌레 사냥꾼으로 그린다. 벌레와 노는 고양이의 무료한 일상, 바위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새 비서를 둔 도인, 삼원색의 색상도를 물고기와 자라로 꾸민 〈수중삼원색도〉, 총 한 자루로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까지 낚으려는 〈이중목적도〉, 작은 고기를 삼키려는 큰 고기의 〈묵색대어점심식사도〉, 화가의 일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무질서실내배치도〉 등 동양의 화제(畵題)를 패러디한 재치는 사색의 발랄함에 기인한다.

셋째, 이두원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재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두원의 도상에는 여러 국가의 문화적 성과들이 담겨 있다. 그는 문화적 혼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가 엮어내는 혼종은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적 발판이 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두원은 타자의 경험을 수렴하고, 다른 세계의 문화적 상징들을 여과하여 자신의 예술적 기표로 삼고 있다. 다른 세계에서의 다양한 여행 경험이 그에게 자유로운 예술적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두원의 작품에는 놀이 요소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의 기발한 위트는 잔잔한 코믹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웃음의 내용들은 현실에 무수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그림들을 보노라면 순간순간이 즐거워진다. 이런 점에서 이두원의 작품은 사회에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두원 작품의 매력은 문명을 끌어안은 채 자연으로 뛰어드는 유쾌한 야생의 외침에 있다고 하겠다. 각종 오브제가 결합된 질료미,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터치에 의한 표현미, 생략과 강조를 투영하는 구상적 형식미는 이두원의 예술성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미감들이다. 이런 이두원의 미감들은 동양과 서양,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정의 하이브리드로서 묘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가벼움, 밝음, 명쾌함,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미적 즐거움은 도덕에 지배되는 일상을 전복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도덕은 형식을 결정하고 그것을 강제하며 규칙을 가지게 된다.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어떤 범주와 체계를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응고된 아카데미, 한 사회 체제에 순응하는 보수적인 예술이 돼버린다. 이두원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야말로 도덕적 세계에서는 하나의 반란이고 무수한 일탈이 된다.

Doowon LEE 이두원 (b.1982-)

| Solo Exhibitions |

2023 Three Taste Artwork (Saatchi Gallery, London, UK)
2022 Doowon; Forty, the age of temptation (Gallery MAC, Busan)
2021 Lee Doo Won Solo Exhibition (Kimreeaa Gallery, Seoul)
2020 Flower Garden IN BIRDS, BIRDS IN Flower Garden (Gallery MAC, Busan)
2018 www.oldpainter.come-retro+vintage+painting (Gallery MAC, Busan)
2017 The hack painter Lee Doowon (Gallery MAC, Busan)
2016 Transmission from father to son (Gallery MAC, Busan)
2015 Owls in a painting garden (Gallery MAC, Busan)
2015 Lee Doowon + Outsider artist (Daon gallery, Seoul)
2014 Small painting (kimreeaa gallery, Seoul)
2013 Wild & a Child (Gallery MAC, Busan)
2013 Caravan Atelier Moving Story (Han Keesook Gallery, Daegu)
2011 Disorder but just GO (Han Keesook Gallery, Daegu)
2011 Doowon's landscape (Lee Jung-seop Art Museum, Jeju-island)
2010 DIS+ORDER=Universe (Lee Jung-seop Art Museum, Jeju-island)
2009 Overcoming Panic Disorder of Adult Painter (3 Story, Seoul)
2008 Painter Flies Sadly (Gallery Sogool, Seoul)

|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2024-2019 Korea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2023-2018 Kiaf SEOUL (COEX, Seoul)
2023-2018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2023 PAUSE (Gallery MAC, Busan)
2023-2019 ART BUSAN (BEXCO, Busan)
2022 Chaekgeori – Our shelves Our selves (Weltmuseum Wien, Vienna/Austria)
2022 Start Art Fair Seoul (The Seouliteum, Seoul)
2022 Cultivating Corea (Scott & Jae Gallery of Beverly Hills, LA/U.S.A)
2021 INTERMISSION (Gallery MAC, Busan)
2020 Korean Eye 2020 : Creativity & Daydream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Russia)
2020 BAMA (Busan Annual Market of Art) (BEXCO, Busan)
2019 Korean Eye 2020 Teaser (Saatchi Gallery, London/U.K)
2019 Diaf (Daegu International Art Fair) (EXCO, Daegu)
2018 ART JEJU 2018 (Maison glad, Jeju-island)
2018 START KOREAN EYE (Saatchi gallery, London/U.K)
2016 Affordable Art Fair (Milano/Italy)
2014 Alla Prima India Art Fair (Delhi/India)
2014 Hong Kong Contemporary 14 (Hong Kong)
2012 Lee Jung-seop Creative Studio 3nd residents exhibition (Lee Jung-seop Art Museum, Jeju)
2011 The Gift of Nature (Lee Jung-seop Art Museum, Jeju)
2010 Lee Jung-seop Creative Studio 2nd residents exhibition (Lee Jung-seop Art Museum, Jeju)
2010 Dreaming Nomad 5 Young Artists (Lee Jung-seop Art Museum, Jeju)
2008 Annaaugstaein Fine Arts in Berlin (Berlin/Germany)
etc.

| Residency & Awards & Activities |

2023 Exclusive contract with 'PCA' and 'Gallery MAC'
2020 Art Collaboration with 'ABB FORMULLA-E CHAMPIONSHIP'
2019 Damso Art Studio (Jeju)
2014-2011 Appointment of honorary teacher in the art depart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Space Yeongcheon Art Studio (Yeong-cheon)
2013 4th Gallery MAC Young Artist Award
2012 Art Collaboration with 'MIN COLOR'
2011 Lee Jung-seop Creative Studio (Jeju)
2010 Lee Jung-seop Creative Studio (Jeju)
2010 Art Collaboration with Jewelry brand 'GOLDEN DEW' and 'STYLUS'

| Critique |

An Exhilarating Hybrid: Driving Civilization into the Wild

Eunja JEON Curator of Lee Jungseop Art Museum

Nature's ability and power to adapt to the environment, no matter how harsh the condition may be permeates through the works of Lee Doo Won. This ability demonstrated in his work can be viewed in four different ways: first, you can look at it in terms of modification, distortion and emphasis; second, in terms of humor characterized by contrast and wit; third, in terms of cultural hybrid with various cultural achievements blended together; fourth, in terms of fun and play.

If you study his animal paintings, the first viewpoint – modification, distortion and emphasis – is well observed. For instance, a bird from his painting may be different in shapes and sizes compared to a bird in reality, but it makes us assume that it does exist somewhere we do not know. A creature may be emphasized by the use of an objet such as a toothbrush in an attempt to emphasize a bird as a predator. Lee properly mixes objets, by which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giraffes, beetles and dogs stand out. The paradox, in which realism is attained from things that are unreal, may be the effect of such use of objets.

The second viewpoint – humor characterized by contrast and wit – is observed when a frog is contrasted with a pianist and Buddha, or when a bird is portrayed as a hunter for winged insects, which illuminates an obvious fact in the law of the jungle. Lee's wit, stemming from lively contemplation, is also observed in the parodies of oriental paintings: a tedious daily routine of a cat playing with an insect, an ascetic who, while painting, listens to the radio on a rock with a bird secretary at his side, a three-color painting with fish and turtles entitled 〈Three Color Painting of Underwater〉, a rifle portrayed in 〈Rifle of Two Purposes〉 for the purpose of both hunting and fishing, a big fish in an attempt to swallow a smaller fish in 〈Big Fish at Lunch in Chinese Ink〉 and a glance at a painter's daily routine in 〈Chaotic Space Arrangement〉.

Lee also excels in absorbing and synthesizing different cultures, for various cultural achievements root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can be observed in his paintings. He incessantly attempts cultural hybrid, which becomes an experimental springboard to creation. Whether consciously or not, Lee absorbs others' experience and filters cultural symbols from other realities, which signifies his artistic vision. His travels to different cultures have inspired his free artistic expression.

Lastly, the fun element frequently appears in Lee's work. His ingenious wit reflects a subtle sense of humor. Such humor exists in myriad forms around us; however, the ability to recognize it is not fostered overnight. It is a fun experience to appreciate his painting. In this sense, Lee's work has become a medium that brings fun to the society.

Lee's work has its appeal, in that it jumps into the wild and lets out an exhilarating cry while hugging the human civilization. There is combinatorial aesthetics in Lee's work: beauty in the substance matter, which combines various kinds of objets; beauty in the expression realized by impulsive touches and emotions in the moment; beauty in the design and form that reflects emphasis and ellipsis. Such aesthetics, as a hybrid of East and West, civilization and nature and reason and emotions, arouses curious liveliness. At the same time, the artistic pleasure that can be described as lightness, brightness, clarity and warmth works as a mechanism that throws off our day-to-day life governed by morals and ethics.

Ethics determines form and forces it, which becomes a rule. As soon as a piece of art is categorized and systemized, it becomes a coagulated and conservative art that conforms to the society's system. The exhilaration that comes through Lee's work becomes a revolt and deviation in all directions in the ethical world.